

연기도 예능도 A+... '윤스테이' 멤버들 세계서 주목받다

제2 전성기 맞은 윤여정 존재감 과시 이서진·정유미·박서준·최우식 활약 "나영석 사단 콘텐츠와 최고의 궁합"



영화 '미나리'로 20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사장 겸 메인 셰프 윤여정을 필두로 경영을 책임지는 이서진, 주방장 정유미와 부주방장 박서준, 그리고 인턴 최우식까지.

이들이 운영하는 한옥스테이이니,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한류 팬들로서도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스타 PD 나영석 사단의 tvN 금요 예능 '윤스테이' 5인방은 영화와 드라마 등 작품에서도, 그리고 예능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윤여정(74)은 5인방 중에서도 최근 가장 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엔터사의 독립영화이자 정이삭 감독의 작품인 '미나리'로 현지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현지 주요 비평가 협회를 포함해 여러 시상식에서 총 20개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여정은 기세를 몰아 글로벌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애플TV 플러스 드라마 '파친코'에도 출연한다. 4대에 걸친 한국인 이민 가족의 대사를 통해 역사가 관통한 개인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이처럼 데뷔 55년 만에 본업인 연기로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그는 '윤식당'에 이은 '윤스테이'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삼산재를 찾은 외국인 손님들과 편안하면서도 소탈한 매력으로 소통하고 있다. '윤식당'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에 이어 새롭게 합류한 최우식과도 신선한 케미(케미스트리, 호흡)를 자랑하며 '상냥하고 열린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우식 역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통해

세계 팬들과 만난 데 이어 '윤스테이'에서도 열정 넘치는 인턴의 모습으로 외국인 손님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캐나다 국적인 그는 손님들이 촬영 중임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창한 영어로 수다를 떨고, 채식주의자 손님이 오자 반찬에서 새우젓이 들어간 김치를 빼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연진도 그의 친화력에 "타고났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윤스테이'의 최대 수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로 일본에서 청춘 판 '한자와 나오키' (半澤直樹)로 불리며 3차 한류의 주역이 된 박서준 역시 연기와 예능 활동을 우수하게 병행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윤스테이'에서는 타고난 일머리로 멀티플레이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태원 클라쓰'로 박새로이 열풍을 일으킨 그는 영화 '드림' (가제)과 '콘크리트 유토피아'로도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정유미 역시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으며, 나 PD와는 '윤식

당'과 '여름방학'으로 호흡을 다진 덕분에 '윤스테이'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손가락 부상에도 주방장으로서 역할을 적절 해내는 모습이 출연진은 물론 팬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김태용 감독의 영화 '원더랜드'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나 PD의 예능 패러소나로 불리는 이서진도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온다. 그는 다음 달 20일 첫 방송할 OCN 주말극 '타임즈'에서 과거의 기자 이진우 역을 맡아 대통령 서거태(김영철)의 죽음을 막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OCN 콘텐츠 역시 최근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는 만큼 예능 이미지를 벗고 본업으로도 주목받을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가에서는 5인방의 활약에 대해 나 PD와 궁합이 시너지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달 31일 "특히 윤여정과 최우식은 나영석 사단과 만나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나영석 사단은 기획 단계부터 인물들을 충분히 검증해 관찰 카메라에 들어왔을 때 최상의 매력을 뽑아낸다. 연기보다도 진짜 모습의 매력을 끌어내는 트렌드와 잘 어울리는 배우들"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한국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시도를 했다. 한옥과 한식의 매력을 알리는 글로벌 콘텐츠로 역할을 꽤 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여정을 필두로 배우들이 잘 기획된 나 PD의 글로벌 콘텐츠와 최상의 궁합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론칭을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올해 기대되는 웹툰 원작 드라마는 '유미의 세포들'"

온라인 설문 결과 11.3% 답해 최고 원작 싱크로율 '이태원 클라쓰'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유미의 세포들' 특별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쏟아지는 가운데 올해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작품은 '유미의 세포들'로 파악됐다.

온라인 조사회사 리서치퍼스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툰 원작 드라마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이 올해 가장 기대하는 드라마는 작가 이동건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유미의 세포들'이 11.3%로 1위에 꼽혔다.

이 작품은 주인공 유미의 삶, 특히 로맨스와 관련된 일화들을 뚝뚝 여러 세포의 가치관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이다. 주인공 유미 역에는 배우 김고은이 캐스팅돼 기대를 모은다. 또 살아있는 세포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의 연출을 보여줄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어 '모범택시' (10.8%)와 '재혼황후' (10.8%)가 공동 2위에 올랐고 이외에도 '간 떨어지는 동거' (8.7%), '지금 우리 학교는' (7.8%), 'D.P 개의 날' (7.1%) 등이 시청자들의

기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퍼스트는 지방영역 작품 중 원작과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드라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박서준-김다미 주연의 JTBC '이태원 클라쓰'가 23.9%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태원 클라쓰'는 작가 광진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이태원을 배경으로 각자의 가치관을 지키며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박새로이, 조이서 등 개성 있는 인물들과 함께 그들의 스타일링이 20~30대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박새로이 신드롬을 일으켰다. 2위에는 최근 종영한 OCN '경이로운 소문'



'이태원 클라쓰'

(9.7%)이 꼽혔다. 작가 장이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국수집 직원으로 위장한 '카운터'들이 지상의 악귀를 사냥하는 한국형 히어로극이다. OCN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 (11.0%, 닐슨코리아 유료가구)을 기록하며 시즌 2 제작을 예고했다.

3위에는 조선 시대 좀비 미스터리 스릴러로 큰 인기를 끈 넷플릭스 '킹덤' (9.0%)이 올랐으며 이어 OCN '타인은 지옥이다' (6.5%), SBS TV '편의점 세이버' (6.3%), tvN '여신강림' (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GS&패널을 통해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포인트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의상 1억8천만원에 낙찰

경매 물품 가운데 최고가 음악인 복지 기금 마련에 사용



미국 자선경매에 나온 BTS 뮤비 의상.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자선 경매에 내놓은 뮤직비디오 의상이 한화로 약 2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팔렸다.

빌보드는 31일 (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온 의상이 미국 줄리안 옥션의 온라인 경매에서 총 16만2500달러 (약 1억8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해당 경매에 나온 물품 가운데 최고가이자, 예상 가격보다 8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고 빌보드는 설명했다.

낙찰자는 일본인 수집가 유사쿠 메사와, 유튜브 히카킨(HIKAKIN)이다.

해당 의상은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공식 뮤직비디오의 도입부와 후반부 등에서 착용한 것으로 파스텔톤 셔츠와 바지, 모자, 티셔츠, 운동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래퍼 스눕독의 자화상 그림이 두 번 짝으로 높은 가격인 9만6000 달러에 팔렸으며 니키 식스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2만8800달러), 빌리

모리슨이 그린 크리스 마틴 그림(2만5600달러) 등이 고가에 판매됐다.

이번 경매는 미국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리코딩 아카데미'의 자선 단체 뮤직케어(MusicCares)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뮤직케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음악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